



독일월드컵 D-25

태극전사들 소집... 지금부터 '베스트 11' 경쟁



2006 독일월드컵 태극전사 소집 첫날인 14일 오후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첫 훈련에서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연환스

“체력강화에 주력”

■ 아드보카트호 첫 훈련

“한달 간의 집중훈련으로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4강 신화의 재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의 성원을 가슴에 품고 팀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독일월드컵 준비를 위한 첫 향례의 땀을 높이 흘렸다.

지난 11일 23명의 2006 독일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확정된 ‘아드보카트호’는 14일 오전 파주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시작된 첫 소집훈련을 통해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정오로 예정된 소집시간을 앞두고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이 파주NFC에 도착하기 시작한 가운데 오전 9시 50분께 훈련보 코치가 자신의 승용차편으로 가장 먼저 입

소해 눈길을 끌었다. 흥 코치의 뒤를 이어 정기동 골키퍼 코치가 도착했고, 김 배어백 수석코치가 압신 고트비 코치 및 물리치료사

은 랑엔뎀, 레이몬드 베르하이엔 피지컬 트레이너를 이끌고 입소를 마쳤다.

오전 10시30분께 분홍색 체크무늬 셔츠의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파주NFC에 도착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오전 11시로 예정된 코칭스태프 회의를 준비했다.

이날 태극전사 중에서 가장 먼저 파주NFC에 도착한 이는 설기현(울버햄프턴). 일찌감치 입국해 강릉에서 휴식과 개인훈련을 했던 설기현은 이날 오전 강릉을 출발해 오전 10시에 파주NFC에 도착했다.

이날 태극전사 중에서 가장 먼저 파주NFC에 도착한 이는 설기현(울버햄프턴). 일찌감치 입국해 강릉에서 휴식과 개인훈련을 했던 설기현은 이날 오전 강릉을 출발해 오전 10시에 파주NFC에 도착했다.

이날 정오로 예정된 소집시간을 앞두고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이 파주NFC에 도착하기 시작한 가운데 오전 9시 50분께 훈련보 코치가 자신의 승용차편으로 가장 먼저 입

소해 눈길을 끌었다. 흥 코치의 뒤를 이어 정기동 골키퍼 코치가 도착했고, 김 배어백 수석코치가 압신 고트비 코치 및 물리치료사

은 랑엔뎀, 레이몬드 베르하이엔 피지컬 트레이너를 이끌고 입소를 마쳤다.

오전 10시30분께 분홍색 체크무늬 셔츠의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파주NFC에 도착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오전 11시로 예정된 코칭스태프 회의를 준비했다.

이날 태극전사 중에서 가장 먼저 파주NFC에 도착한 이는 설기현(울버햄프턴). 일찌감치 입국해 강릉에서 휴식과 개인훈련을 했던 설기현은 이날 오전 강릉을 출발해 오전 10시에 파주NFC에 도착했다.

이날 정오로 예정된 소집시간을 앞두고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이 파주NFC에 도착하기 시작한 가운데 오전 9시 50분께 훈련보 코치가 자신의 승용차편으로 가장 먼저 입

소해 눈길을 끌었다. 흥 코치의 뒤를 이어 정기동 골키퍼 코치가 도착했고, 김 배어백 수석코치가 압신 고트비 코치 및 물리치료사

은 랑엔뎀, 레이몬드 베르하이엔 피지컬 트레이너를 이끌고 입소를 마쳤다.

오전 10시30분께 분홍색 체크무늬 셔츠의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파주NFC에 도착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오전 11시로 예정된 코칭스태프 회의를 준비했다.

이영표 성격책 챙겨...김남일 인터뷰 거부

■ 대표팀 소집 이모저모

14일 파주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로 소집된 23명의 ‘태극 전사’들은 저마다 개성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눈길을 끌었다.

평소 남다른 신인심으로 잘 알려진 ‘초통이’ 이영표(29·토티)는 소꿉백 안에 성격책을 넣어왔다. 또 훈련 기간에 먹을 보약을 따로 챙겨왔다.

김진규(21·주빌로)는 에이전트가 축구화 10켤레를 따로 챙겨왔다.

김진규의 에이전트 오앤디 측은 “김진규가 쓸 축구화 5켤레와 16일 입국하는 이을용이 쓸 5켤레를 각각 따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진규의 에이전트 오앤디 측은 “김진규가 쓸 축구화 5켤레와 16일 입국하는 이을용이 쓸 5켤레를 각각 따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천수(25·울산)는 놀러온 모자 뒤로 하얗게 염색한 머리가 유난히 돋보였다.

“터프 가이” 김남일(29·수원)은 이날 23명의 대표 선수 중 유일하게 인터뷰를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박주영(21·FC 서울)은 평소 쓰던 축구화 2켤레와 슬리퍼를 가져왔다.

박주영의 에이전트는 “보약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에 보약을 먹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지훈(21·FC 서울)은 개소주를 정성스레 포장해왔다. 백지훈은 “부모님이 잘 챙겨먹고 건강하라며 챙겨주셨다”고 씩씩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날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가용 편을 이용해 소집에 응했는데 유독 골키퍼 김영광(23·전남)만 모택택시를 타고 들어왔다.

김영광은 “김포공항에서부터 타고 왔다. 요금이 4만원 나왔는데 기사분 인상이 좋으셔서 만원을 더 드렸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천수(25·울산)는 놀러온 모자 뒤로 하얗게 염색한 머리가 유난히 돋보였다.

“터프 가이” 김남일(29·수원)은 이날 23명의 대표 선수 중 유일하게 인터뷰를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박주영(21·FC 서울)은 평소 쓰던 축구화 2켤레와 슬리퍼를 가져왔다.

‘독일 경기장 적응’

훈련장 잔디

20mm로 깎아

독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14일 시작된 축구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준비한 훈련 청사진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식 축구 단련’과 ‘독일식 잔디 적응’의 조화였다.

14일 시작된 대표팀 소집훈련을 앞두고 아드보카트 감독은 하루 전날 파주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 잔디의 길이를 20~22mm로 맞춰달라는 주문을 내렸다.

장연환 파주NFC 부장은 이날 소집훈련에 앞서 “아드보카트 감독의 요청에 따라 13일 잔디의 길이를 20mm로 맞춰 깎았다”며 “잔디가 하루에 2mm 정도 자라는 것을 감안해

20mm로 손질했다. 훈련 기간에 이틀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디 길이뿐 아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또 훈련시간 30분 전에 훈련구장에 충분히 물을 뿌려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요구사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한국 특유의 ‘기동성 축구’를 살리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질퍽한 독일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미리 익히자는 속뜻이 담겨있다.

장 부장은 “잔디가 짧아지면 볼의 스피드가 훨씬 빨라진다”며 “한국 선수들의 장점인 기동력을 훈련하기에 좋다”고 설명했다.

그라운드 상태를 미리 선수들이 뛰기 힘든 조건으로 만들어 독일에 갔을 때 쉽게 험지에 적응할 수 있게 하려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대표팀 소집과 함께 파주NFC 관계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졌다.

파주NFC는 훈련기간에 훈련장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식당과 숙소에 100여만 원을 들여 화려한 꽃 장식을 마쳤다. 또 대표팀 선수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식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고, 한국식 식단에 익숙하지 못한 해외 코칭스태프를 위해 양식 조리사 1명을 특별히 채용했다.

Advertisement for '당선확신!!' (Winning Certainty!!) featuring a man speaking and text about political training.

Advertisement for '담양한과' (Damyang Han-gwa) featuring images of various dried fruits and text about their quality.

Advertisement for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New Concept of Reinforced Foundation and Restoration of Settled Structures) featuring diagrams and text about construction techniques.